시설공사업단체 단체장 간담회 개최

4개 시설공사업단체 단체장은 지난 4월 2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우리협회 이상일 회장, 전기협회 장철호 회장, 정보통신협회 문창수 회장, 소방협회 최영웅 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은 지난 4월 25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문창수),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영웅) 단체장 및 임원들과 함께 시설공사업단체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일 회장은 "현재 시설공사업계의 핵심 과제는 분리발주 수호"라고 언급하며 "우리 협회에서는 분리발주 확대를 위해 발주기관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분리발주 규정의 법제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중소업체의 보호 · 육성을 위해 각 단체들이 소통하고 현안문제 공동 대응 등 상호 협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각 협회의 추진사업 및 활동 정보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우리협회는 분리발주 규정 명문화 활동에 대해 밝혔으며,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정부 규제 기요틴 대상에 분리발주 제도 선제적 대응, 전력신기술제도 폐지 활동,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법제처의 분리발주 관련 유권해석, 한국소방시설협회는 분리발주 규정 명문화 추진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한편 이날 4개 시설공사업단체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공동 개선방안 모색과 함께 각 단체별 상근임원을 중심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단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실천키로 했다.

해외진출 기계설비건설업계 CEO 간담회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해외건설협회는 지난 4월 28일 벨레상스서울호텔에서 해외진출 기계설비건설업계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기풍)가 공동으로 지난 4월 28일 벨레상스서울호텔 토파즈룸에서 해외진출 기계설비건설업계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계설비건설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준제이엔씨(주) 고태식 대표(협회 해외기계설비건설발전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하여 윤창기공(주) 백종윤 대표(협회 수석부회장), (주)성보엔지니어링 정달홍 대표(협회 부회장), 세일이엔에스(주) 심기석 대표(협회 윤리위원장), 중원엔지니어링(주) 박정필 대표, (주)정풍개발 김성언 대표, (주)대정설비 이용섭 대표, (주)정도설비 이상천 대표, 우림플랜트(주) 변동주 대표, 삼호건영(주) 우왕제 대표, 성창이엔씨(주) 김준우 사장 등 10여개사 기계설비건설업계 CEO와 박기풍 해외건설협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했다.

고태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 기계설비는 세계 주요 업체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현재 기계설비건설업체는 단독적인 해외시장 진출보다는 국내 종합건설사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반진출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태식 위원장은 또한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

간담회 후 기념촬영

로 우리 협회는 지난 1월 해외건설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기계설비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애로사항 공동조사, 종합건설사와의 동반진출 지원 등을 협력키로 했다"면서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외건설협회의 협조와 우리 업체가 해외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해외건설협회 박기풍 회장은 "최근 개방된 이란 건설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건설업계에 매우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해건협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지 상황 및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건설업계의 진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기풍 회장은 또한 "기계설비업계가 지금은 주로 대기업과 동반진출을 하고 있는데, 리스크 관리를 비롯하여 현지 업체와의 네트워크 및 지역 다각화 등을 통해 세계 주요 업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해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건협은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향후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취합하여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계설비건설업계 대표들은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해외공사 유보금 요구 △특정 보증기관 보증서 수령 거부 △무조건부 보증서 요구 △하도급 업체간 최저가 경쟁 유도행위 △하도급업체 현지법인 설립 강요 △공사대금, 설계변경, 크레임 시 정산절차 간소화 및 조기지급 등 불공정 사례 및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고태식 위원장

고태식 위원장은 “해외 현지법인 간 계약체결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오히려 악용되고 있으며, 계약이행보증이 있음에도 대기업에서 지나치게 유보금을 요구하여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중소 전문업체의 자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우리협회는 공정거래협약평가 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협약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달홍 대표

(주)성보엔지니어링 정달홍 대표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강력하게 건의드리는 것은 업체를 보호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면서 “해외에서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책임전가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서로 공정거래를 하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윤창기공(주) 백종윤 대표는 “경제논리 상 대기업에서도 해외진출 시 국내 협력업체와 동반진출하여 이롭지 않으면 동반진출 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동반진출은 결국 협력업체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점을 내부검증 한 것임에도 리스크 관리를 명목으로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만 충실히 이행될 수 있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고 국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해외건설협회는 이를 고려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백종윤 대표

박기풍 회장

기계설비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박기풍 회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문제는 기계설비건설협회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견 ·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 · 협력해야 우리 기업이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고 더 폭넓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풍 회장은 또한 “해외건설협회에서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현장의 법률 및 계약관리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언제든지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종윤 수석부회장, 경제사절 자격으로 멕시코 방문

협회 백종윤 수석부회장(사진)은 경제사절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맥시코를 공식 방문했다

협회 백종윤 수석부회장(서울특별시회 회장)은 경제 사절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지난 4월 2일부터 5일까지 멕시코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멕시코 국빈 방문은 양국 정상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경제 사절단은 한-멕시코 경제 협력 역사상 최대 규모인 144개사 145명으로 구성됐으며 일대일 상담회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81개 기업이 참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멕시코 방문은 유망 신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 강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협력 강화, 글로벌 중견국 연대를 통한 국제 위상 제고, 한류 문화 사업 진출 및 친한(親韓) 미래 세대 육성, 북핵 불용의 확고한 파트너십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멕시코는 인구 1억 2천만명, GDP(국내총생산) 1조 2천억달러 규모이며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에 이어 두번째로 큰 시장을 갖고 있다. 광범위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북미와 남미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교차로에 있어 우리 기업의 미주 시장 진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불린다. 또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 발전 계획을 수립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 녹색 경제, 내수 활성화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인프라 시장 진출과 에너지 · 의료 ·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10차 해외기계설비건설발전위원회 개최

해외기계설비건설발전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벨레상스서울 호텔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회 해외기계설비건설발전위원회(위원장 고태식)는 지난 4월 28일 벨레상스서울호텔 토파즈룸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해외취업지원사업(K-MOVE) 등 해외건설업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고태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K-MOVE 사업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해외 현장에서 활용할 우수 인력 양성의 좋은 취지로 시작돼 협회에서도 많은 회원사가 적극 참여했다"면서 "그러나 아쉽게도 국비지원 채용자들이 연수과정 수료 후 해외현장에 파견 중 하차 사례가 빈번해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중점 논의해 보자"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두원공과대학교 건축설비소방과 김영중 교수가 참석해 K-MOVE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제1차 기계설비산업선진화 추진위원회 개최

제1차 기계설비산업선진화 추진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7일 기계설비건설회관 7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회(회장 이상일)는 기계설비건설산업의 위상 재정립과 선진화 방안 도출 및 추진을 위해 우리 협회와 연구원을 비롯해 학계, 설계, 제조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계설비산업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4월 7일 기계설비건설회관 7층 소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유호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계설비는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잠재력이 큰 분야 중 하나다"면서 "기계설비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신기후체제 하에서 기계설비의 도약 및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노력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계설비산업의 재정의 △기계설비산업의 비전 정립 △기계설비산업의 이해당사자 정리 △기계설비산업의 역할 및 필요성 홍보 △기계설비산업의 현안 및 문제점 분석 △기계설비산업의 선진화 방안 및 추진전략 도출 △기계설비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단 · 중기 실행계획 추진 등을 목표로 매월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계설비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 명칭 결정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협의했다. 또한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 낙찰률 상향 등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기계설비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 명단

직위	성명	소속	비고
위원장	유호선	숭실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학계
위원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회장	협회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협회
	김민수	서울대학교 교수	학계
	김태철	신원이엔지(주) 대표 (한국설비기술협회 부회장)	제조 및 설계
	장세동	LG전자 상무(L&E 연구센터 에너지솔루션연구소 소장)	제조
간사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정책본부장	협회
간사보	오치돈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제3차 가스시설시공업 중장기 발전 TF회의 개최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지난 4월 8일 제3차 가스시설시공업 중장기 발전 TF회의를 개최했다

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두형)는 지난 4월 8일 인우공영(주) 회의실에서 제3차 가스시설시공업 중장기 발전 TF회의를 개최하고, 가스 재난재해예방복구 운영위원회 확대 방안을 비롯하여 LPG 배관망 사업 추진 현황 및 참여방법 등 가스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두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간사님들의 적극적인 호응 덕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사업예산이 늘어 서울, 강원, 대구, 경기, 충북, 전북, 경북 지역에서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두형 위원장은 또한 "올해는 가스설비공사협의회 2016 워크숍을 개최하고 가스 재난재해예방복구 운영위원도 60개 회원사에서 120개 회원사로 늘릴 계획이니 기존 운영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스설비공사협의회 2016 워크숍(6월 28일~29일) 개최 확정, 2016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2016년 표준품셈 가스설비 개정대상 현장 실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제37차 기계설비건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TF 위원회 개최

협회 기계설비건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TF 위원회(위원장 백종윤)는 지난 4월 28일 서울시회 회장실에서 제3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조달청, 국토부, 행복청,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LH공사, LPG배관망 사업단, 국방부 등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업무협의 내용을 보고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대책(안) 협의 내용을 비롯해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정착화 홍보 현황을 보고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사 분할계약금지 준수사항 통보' 관련 대책과 충북도회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 제정 추진 현황을 비롯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관련 추진사항 및 조치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백종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분리발주를 건의하는 부분은 전체 건설공사의 아주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를 분리발주 하자는 뜻으로 오인하여 분리발주 논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분리발주 홍보 시 물량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실과 다르게 확대 해석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사소식

국제산공(주) 신윤하 회장, 제35대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장에 선출

국제산공(주) 신윤하 회장

국제산공(주) 신윤하 회장이 지난 4월 27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2016년도 정기이사회에서 제35대 신임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신윤하 성균관대학교 신임 총동문회장은 "글로벌 리딩 대학 성균관대의 위상에 걸맞는 동창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총동창회 발전을 통해 모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윤하 회장은 1963년 성균관대학교 문리대 생명과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6년부터 성균관대학교 동창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여 경영인 포럼회장, 동창회 자문위원, 운영위원, 분과위원장협의회 회장 등 성균관대학교 동창회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성균관대학교에 장학금과 글로벌센터 건립기금으로 각각 1억여원을 후원하는 등 후학 양성에도 큰 기여를 했으며, 이에 대한 공로로 2013년 자랑스런 성균인상을 수상했다.